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0. 7.(월) 11:00,  
(지면) 2024. 10. 8.(화) 조간

배포 2024. 10. 7.(월) 06:00

## 남극 월동연구대, 세상의 끝 남극으로 간다

- 8일 남극과학기지(세종·장보고) 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10월 8일(화) 극지연구소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8차 월동연구대(대장 김원준) 및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대장 장성호) 합동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월동연구대는 각 18명으로 구성되어 남극 하계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1년간 남극 현장연구 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남극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과학기지로, 기후변화,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남극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에 건설되었으며, 우주, 천문, 빙하, 운석 등 대륙기반의 남극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남극 월동연구대도 기후변화, 남극 생태계, 대기 및 지권연구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월동연구대는 혹독한 남극 환경에서 무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훈련, 응급처치, 무선통신 사용법 등의 교육과 1년간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소양교육을 수료하고 남극으로 떠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 월동연구대의 현장연구 활동은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라며, “1년여간 모든 대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책임자	과 장	강미숙 (044-200-5240)
		담당자	사무관	김근령 (044-200-6182)
담당 부서	극지연구소 홍보실	책임자	실 장	강민구 (032-770-8630)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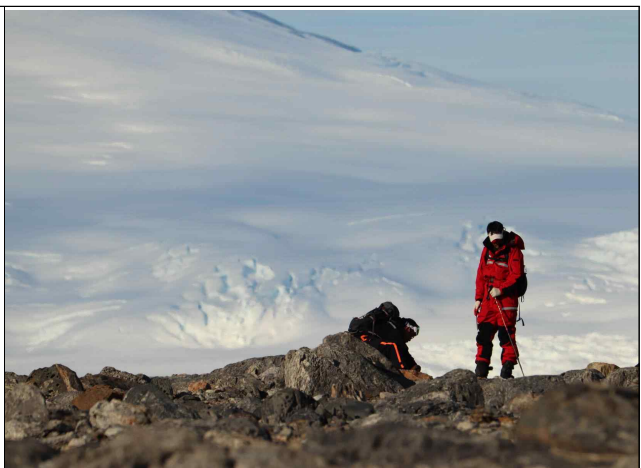
## 월동연구대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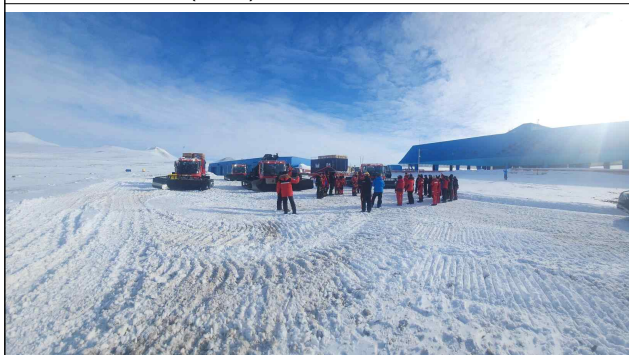
< '23년 월동연구대(세종 37차/장보고 11차) 발대식 >



(세종) 육상 시료 채집



(장보고) 생물 조사



(장보고) K-루트 탐사 지원



(장보고) 기상

< 월동연구대 활동 사진 >